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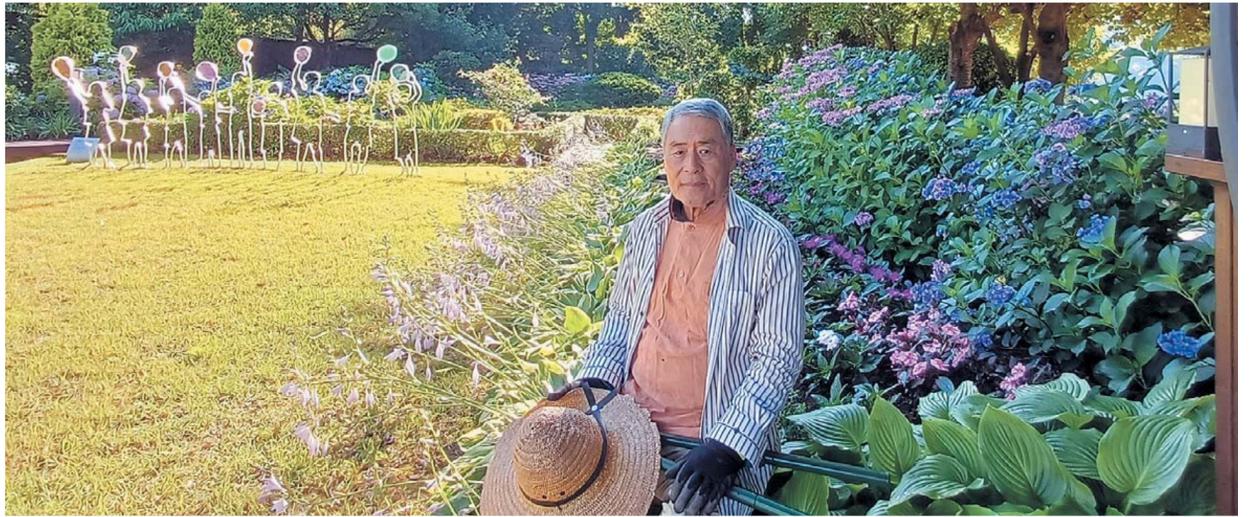
예술작품 함께 즐기는 힐링정원 조성

●전남도 7월의 임업인 곽형수 고홍 '하담정' 대표

2대째 운영 영남중 폐교 이후 '남포미술관' 설립
20여년간 꽃·나무 가꾸 제10호 도민간정원 등록

전남도는 7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남도 제10호 민간정원 '하담정'을 손수 가꾼 곽형수(73) 대표를 선정했다. 하담정은 고흥 영남면에 위치한 남포미술관 옆 힐링정원이다.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고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정원이다. 곽 대표는 2003년 2대째 운영해오던 학교법인 팔영학원 영남중학교가 문을 닫자 그 뜻을 이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작고 소박한 '남포미술관'을 설립하고 건물과 터를 보존해 꽃과 나무를 심어 살아있는 공간으로 가꿨다. 미술관과 어울리는 자연경관을 가꾸기 위해 운동장에 꽃과 나무를 심어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휴먼지를 일으키던 운동장이 푸른정원으로 탈바꿈했다. 2019년엔 제10호 전남도 민간정원

으로 등록됐다. 90여종의 수목과 200여종의 초화류는 감탕나무 등 남부 수종이 주를 이뤘다. 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다. 정원 곳곳에는 유명 작가의 조각 작품이 설치돼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하담정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여름으로 접어드는 7월이다. 수국 꽃망울이 산책로를 장식하고 우아한 자태의 백련은 정자를 배경으로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70년 수령의 배롱나무가 붉은 꽃으로 뒤덮여 눈부신 장관을 연출한다. 곽 대표는 1984년부터 전남조경수협회 회원으로 20여년간 활동하고 있다. 직접 재배한 단풍, 산딸나무 등 조경수를 고흥지역 국토 공원과 사업에 기부해 마을 경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 7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곽형수 하담정 대표와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전남도 제10호 민간정원 '하담정' 전경.

또한 (사)전남수목원·정원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원의 본고장인 전남을 찾는 전국 단위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색깔의 정원을 제공하고 정원관광이라는 신성장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간정원은 법인·단체나 개인이 수년간 정성을 다해 가꾼 소중한 정원을 국민 모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도시사가 등록·관리하는 정원이다. 전남도는 2017년 '힐링파크 숲속속속'

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7개 민간정원을 등록했다. 전국에선 현재 137개소의 민간정원이 등록돼 있으며 전남도가 두 번째로 많다. 곽형수 대표는 "전남의 민간정원은 타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남도의 우

수한 산림 경관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자연문화유산"이라며 "작고 소박한 민간정원이 지역민에게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장마 전후 고온다습 고추 탄저병 주의

도농기원 "바이러스 발생 우려...방제·포장 관리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고추 탄저병(사진) 등 병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 위주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10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탄저병은 일 평균 기온이 22-27℃의 조건과 잦은 강우로 인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률이 높아 장마 기간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고추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탄저병,

총재벌레, 담배나방 등의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해충 사전 예방은 한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주로 발생하는 탄저병은 비가 자주 오면 발생률이 증가하고 줄기나 열매에 움푹 들어간 병반이 생기는 특징이 있다. 고추 열매에 직접 피해를 입혀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예방을 위해서는 병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열매 표면에 약액이 골고루



문을 수 있도록 꼼꼼히 뿌려주고 비바람에 의해 다른 열매에 2차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병든 열매는 보이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또 주로 물을 통해 전염되는 만큼 두둑을 높이고 배수로 관리와 고추밭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탄저병 외에도 장마 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담배나방, 진딧물과 바이러스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예방 차원에서 진딧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등 잡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박인구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잦은 강우로 고추 병해충 발생이 증가해 수량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장마 전후 병해충 사전 방제와 배수로 등의 포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 청년창업타운 입주 '에너지컨버터'社 두더지·땅강아지 퇴치 '잔디부자' 비료 출시

동물 기피 향활용 100% 천연추출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0일 "전남 청년창업타운 입주기업인 '에너지컨버터'에서 잔디관리용 전문 비료인 '잔디부자' 리뉴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골프장과 묘지의 잔디를 훼손하는 두더지와 땅강아지 등을 퇴치하기 위해 드넓은 골프장에 두더지 및 유독한 화학농약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에너지컨버터에서 출시한 이 제품은 지난해 출시했던 제품의 성능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잔디부자'는 100% 천연추출물로 이뤄진 면역증강비료로 잔디를 훼손하는 주요 야생동물인 두더지, 멧돼지, 땅강아지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디부자'의 원리는 야생동물이나 해충이 싫어하는 향을 지닌 천연추출물로 구성돼 있으며 사용법은 최대 20배까지 물에 희석해 잔디에 골고루 뿌



려주면 된다. 제품을 개발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전문 개발업체 '에너지컨버터' 이수민 대표는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소재·제품을 개발해 사회적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잔디부자' 제품이 야생동물 퇴치는 물론,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길 바란다"며 "잠입 아이템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폭염·영농철 대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

도, 보험료 80-100% 지원

전남도는 10일 "8월 폭염과 9월 영농철 등에 대비해 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생긴 운영집환과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보장한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2천500만원

(보조 122억6천만원·자부담 30억6천500만원)이다. 가입 보험료는 상해 중 기본형인 일반형 기준 약 9만8천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4천원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시원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염색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